

“쌀아, 米안해”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농협미국중합처리장 전국협의회 주최로 '쌀 시장격리 촉구'를 위한 전국 농협 조합장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농협 제공>

전국 140개 농협 조합장들 “쌀 시장격리 시행하라” 청와대 앞 시위
전남 94명 상경 ... “밥 한 공기 쌀값, 자판기 커피 한 잔보다 싸다니”

한낮 수온이 영하권에 머문 13일 오후 청와대 인근 2개 차로 100m 구간은 빨간 머리띠를 두른 인파로 가득했다. <관련기사 3면>
“쌀값 보장하라!”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 이들은 평균 연령 예순이 넘는 전국 140개 농협 조합장들이다.
산지 대표인 농협 조합장들이 확성기와 피켓을 잡은 건 지난 2004년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저마다 “농민과의 약속 이행하라” “쌀값 보장대책 수립하라” “쌀 자동격리 즉각 시행하라”라는 문구를 들고 소리 높여 이를 제창했다.
산지 대표인 농협 조합장 140명과 미국중합처리장(RPC) 대표이사 및 장장 220명 등 360여 명이 거리로 나선 것은 정부에 남아도는 쌀을 즉각 시장격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전남에서는 조합장 55명 등 94명이 새벽 비를 맞고 상경했다.
이들의 요구는 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 수준만이라도 유지하게 쌀이 시장으로 더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쌀 목표가격제’가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마련된 시장격리 발동을 위한 법적 장치를 철저히 이 믿었지만 첫해부터 삐걱대고 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1601t으로, 전년보다 10.7%(37만5022t) 증가했다. 산곡 수요량과 비교하면 7-8% 더 많은 31만t이 초과 생산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시장격리 조건으로 내건 초과생산 비율 3%의 두 배 수준이다.
이날 참가자들의 주된 대화 소재는 ‘쌀 수매가’로 각 시·군별 가격을 물어보며 녹록치 않은 시세를 환담했다.
올해 수매가(조곡 40kg)는 6만2000~6만30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만원에 비해서는 10-11% 가량 급락한 가격이다.
김용경(61) 광주·전남RPC장장대표협의회장은 “(도정된) 쌀 도매가는 20kg에 4만5000~4만6000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 5만2000원 선과는 거리가 있다”며 “쌀 20kg에 적어도 4만8000원은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1000~2000원 손해를 보고 팔고 있다. 농민도 판매자인 농협, RPC도 만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치킨 계암’을 벌이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불 같이 일어난 농심(農心)은 쌀값을 물가 조정

의 잦대로만 판단하는 기획재정부로 향했다.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은 “밥 한 공기 드는 쌀값은 260원 가량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에도 못 미친다”며 “나락 값이 40kg 포대당 1000원만 떨어져도 전남 농민 소득은 270억원이 감소할 판인데 과잉 생산물량 31만t을 시장격리한다 해도 내년 쌀 농가의 시름은 여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쌀 공급과잉 물량 전망에 대한 시장격리’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조정제 등 쌀 적정 생산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제 쌀값을 받아보자는 노력은 오늘날의 일입니다. 앞서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 나락 800kg들이 60개를 쌓아 놓고 야적 시위를 벌였고, 8일에는 광주·전남RPC장장대표협의회 등 농민 5개 단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간담회를 벌였지만 오지부동이다.
한편 ‘쌀 수급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의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른 지 2주가 되기 전에 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쌀 시장격리, 즉 추가 매입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서울=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국이 백신 준다하면 북한, 대화에 나올 수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글로벌 인텔리전스서밋 축사
대북 민생제재 해제 우회 촉구



해제와 관련해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북미대화 재개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머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지금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자신의 지난 4년 동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핵 모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코로나19)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2021 글로벌 인텔리전스서밋’ 축사에서 “지금 북한은 코로나19 모 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대화는 물론 만나서 자 체가 어렵고, 국경을 완전히 막아 개미 한 마리도 들고 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코로나19 백신 공급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백신 접종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도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장은 또 미국이 북한의 민생분야 대북제재

라토리움을 실천해 왔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나’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영변 폐기의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민생 분야 제재 해제, 즉 정제수 수입, 석탄 광물질 수출, 생필품 수입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은 이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한미가 검토 중인 중전선언을 비롯해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며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폐 문제로 주요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유례 없는 전파 속도에 ‘긴장’

함평서 n차 감염17명 정밀검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례 없는 전파 속도에 전남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함평서 나온 전남 첫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 그룹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서울 가족 모임을 통해 감염된 만 5세 원생이 함평 어린이집에 불과 6시간 머무는 동안 교사 2명과 원생 6명을 감염시킨 것은 물론 단기간 가족 등 n차 감염으로 번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지역 내 첫 확진자 3명에 더해 이들과 접촉한 17명에 대한 질병관리청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13일 “오미크론 기존 확진자 3명에 더해 이들과 접촉한 17명의 확진자에 대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 15명은 함평지역 어린이집 원생, 공공기관 종사자, 가족 등으로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함평에서는 전남 지역 첫 오미크론 확진자 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30대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2명으로, 지난 8일과

10일 각각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북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아프가니스탄 국적 30대 외국인 유학생 관련 n차 감염 사례로 조사됐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전남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염 추정자가 어린이집에 6시간 머무는 동안 최소 8명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린 사실을 확인했다. 주말인 지난 4, 5일 모친(전남 5097번), 이모(4864번)와 함께 서울 가족 모임에 갔다가 친척인 전북 어린이집 오미크론 확진자와 만나 감염된 함평 어린이집 원생(5·전남 4827번)이 잠복기도 없이 월요일인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에 머무는 동안 8명이 감염됐고, 이들 가족에게까지 n차 확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사포닌 CA 함량 비교 **피부탄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피부 실험 결과(49 주 사용 결과)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관: 라벤시아(라벤시아연구소) 시험기간: 2021년 03월 09일 ~ 2021년 05월 09일